

'인물의 시대' 예감하는 전기출판의 현주소

인물선정 어렵고 전기작가 드물어...어려움 속 출판사들 관심 부쩍 늘어

우리의 출판에서 전기물은 취약 장르다.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다이아나 왕세자비의 스캔들을 둘러싼 자기고백도, 프랑스 퍼스트레이디의 잔잔한 인생회고도 맥을 추지 못한다. 일본에서 1백만부가 팔린 《다이아나 비:그 숨겨진 비밀》은 치열한 저작권 경합 끝에 금성출판사를 통해 나왔지만, 초판이 겨우 소화되었을 뿐이다. 다니엘 미테랑 여사의 자서전 역시 내용의 일부가 신문에 소개되었을 때는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중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사들은 오래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펴낸다. 전직 대통령이나 정부관료, 기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영화배우에서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까지 잘 팔린다. O.J. 심슨이 자서전 인세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비용을 감당했고 농구장의 악동 데니스 로드만의 자서전 또한 화제가 됐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다룬 책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다. 다만, 그것이 입기중에 썩어진 찬양 일변도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생존하는 사람은 전기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는 원칙을 저버린 탓에 대통령의 생애가 감동의 차원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살아 있는 사람은 외국 식으로 자서전 또는 회고록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자서전은 대필, 전기작가도 드물어

전기는 누가 썼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당사자가 생전에 쓴 것이고, 전기 또는 평전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우리의 전기물 출판의 어려움은 쓰는 사람이 뒤바뀐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자서전은 남이 써주고, 전문적인 전기작가는 없다.

숨은 필자들이 주로 쓰는 책이 바로 자서전류. 실력을 인정받은 대필작가는 원고지 1장당 1만원 이상을 보장받는다. 이들은 사회지도급 인사에서부터 인기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몸주'가 된다.

《어느 정치적 인간의 초상》과 《천재와 광기》등을 쓴 슈테판 츠바이크는 대표적인 전기작가.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전기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최근 들어 《마젤



인물, 자료난 등 전기출판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인물읽기' 불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우리 출판에서 전기물은 취약 장르다. 인물난에 더해 자료의 어려움도 심각하다. 금세기 인물의 생물연대조차 정확한 기록이 드물다. 전기는 대상을 미화하고 자서전은 자기반성의 고백이 없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인물의 시대'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란》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이 속속 번역되고 있다. 그는 《어제의 세계》라는 뛰어난 회고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에게 공인된 전기작가는 아직 없지만, 작고한 민병산씨는 한국의 츠바이크라 할 만하다. 일찍이 전기물에 관심을 갖고 열심으로 수천종의 전기를 모았다. 그는 생전에 전기류 수집의 변을 이렇게 밝혔다.

“책을 모으는 일도 그렇고, 글을 쓰는 일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남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게 좋은데, 전기 전문가라는 게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될 듯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급의 명사들과 사교를 하는 재미가 있다.”

민병산씨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

내·외 인물을 각각 1백명씩 선정해 2백권의 전기전집을 만들 생각이었다. 뜻 맞는 이들과 공동작업을 할 요량이었었는데, 자료를 몽땅 도둑 맞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식 같은 책들을 잃은 아픔을 잊기 위해 서예에 몰입해 일가를 이룬다. 서점에서 눈에 띄는 '민병산 율김'의 세계 위인전들은 그의 전기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낙수(落穗)'다.

민병산씨가 선정한 내국인 목록에는 안중근·홍난파·박두성 같은 이름이 보인다. 박두성은 낯선 이름인데, 이 분은 한글점자를 고안했다. 출판계 한편에서는 '대상 인물난'을 전기출판의 걸림돌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히틀러 같은 이의 전기도 버젓이 나오는 것처럼, 굳이 존경스런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의 일그러진 삶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으면 그만이다.

전기물 출판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인물난보다 자료난이 더 심각하다.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의 일대기를 재구성할 때, 일기 같은 개인 신상자료가 없어 애를 먹었다. 일제 강점기와 군부독재를 살아온 파란 많은 근·현대사의 인물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기를 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혐의를 받는 사람의 일기에 어떤 이의 이름이 한줄이나마 비치면 그 사람 역시 무사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외압에다 약한 기록문화의 전통이 더해져 금세기를 살았는데도 생물연대가 불

명확한 인물이 많다. 인명사전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재미있는 일은 이 사전에 들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저 사전에도 없다. 하나의 사전을 두고 그대로 베낀 때문이다.

자료 부족하고 기록문화 약해

전기는 대상을 미화하고, 자서전은 자기반성적 고백이 미약한 것도 전기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 죽은 이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우리네 미덕이라면, 그나마 자서전에 기대를 걸어야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 투소가 《고백록》에서 보여주는 뼈저린 '고해성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다 아는 잘못에 대한 '자기반성'이 드문게 현실이다. 자신의 오류는 시대의 한계로 돌리고, 민감한 사안은 아예 발설을 하지 않는다.

“자료 수집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전기 집필은 부담이 큰 작업이다. 특히 대상이 생존하는 인물이거나 죽은 지 얼마 안된 본인 경우, 부담이 몹시 크다.”

어린이를 위한 문이환 목사의 전기를 쓰고 있는 소설가 김남일씨의 말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기물이 21세기 한국출판의 주류로 자리잡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다. 주로 해외 전기시리즈를 가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역사인물찾기'(실천문학사)는 국내기획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현대사를 인상깊게 장식했으면서도 부각되지 않은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이순화 편집부장은 말한다.

근대의 맹아기로 거슬러 내려가면, 전기의 목적인 '광맥'과 만난다. 다산 정약용은 자찬(自撰) 묘지명을 비롯해 여러편의 묘지명을 썼다. 자지(自誌)는 자서전이고, 선배 및 지기들에 대한 사적(事蹟)은 평전인 셈이다. “다산 선생은 뛰어난 전기 작가이기도 하다. 녹암 권철신의 묘지명이나 중형 정약전의 그것은 매우 뛰어나다”고 다산연구가 박석무씨는 말한다.

다른 측면에서 전기물의 활성화를 예감하는 시각도 있다. “20세기가 '사건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인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열림원 정은숙 주간은 전망한다. 독서의 양상이 정신없이 터졌던 사건과의 부대낌에서 관조적인 인물 읽기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 최성일 기자